

다산포럼

정지창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내 이발소가 이번 학기가 시작되면서 문을 닫았다. 일흔이 가까운 늙은 이발사 영감님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직원들도 거의 찾지 않는 이발소를 꾸러가는 것이 용하다 싶었는데, 폐업 안내문이나 이런 공고도 없이 슬그머니 문을 닫고 말았다. 눈이 침침한 지 가끔 면도 하다가 상처를 입히기도 했지만 늘 웃음 띤 얼굴로 손님들을 편안하게 맞아주던 분이였다. 작년까지 일하던 선 넘은 면도사 아주머니는 그를 늘 장로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보니 구내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진사 할아버지도 작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몇 년 되었다. 평양 출신의 키가 경충한 그 사진사는 디지털 카메라 등장하면서 말에게 사진관을 물려주고도 가끔씩 정장 차림으로 사진관에 들르곤 했다. 어쩌다 우리 같은 옛날 손님들을 만나면 이산가족이라도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끝도 없이 계속

하는 통에 헤어지기가 힘들었다. 그 다정 다감한 피난민 사진사도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동네 이발소를 다시 찾게 되었는데, 들어가 보니 몇 년 전 길 건너편에 있다가 없어졌던 이발소의 주인아저씨

우리 동네 이발소에서

가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전처럼 손님이 많지 않아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마디가 이제 이발소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란다. 젊은 사람들이 이발소를 찾지 않고 아무도 이발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역 이발사 가운데 대략 50대가 30%이고 60대가 60%, 70대가 10%라고 한다. 경북 문경군 가는 출신

의 50대 이발사는 가은 탄광과 봉암사 얘기를 꺼내자 신이 나서 고향 얘기를 펼쳐 놓았다. 1960, 70년대에 흥청거리던 가은 광업소에서 구내 이발소를 하던 '잘 나가던 그 시절'부터 탄광이 쇠퇴하면서 대구로 나와 동네 이발소를 하게 된 사연을 듣는 동안, 주말이탈도 찾아오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발소 장식도 많이 바뀌어 이제 동서양의 풍경이 혼란된 이발소 그림도 볼 수 없고, 동네 마실꾼을 위한 장기판이나 어린이 손님들을 위한 만화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발소

가 동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방이었다. 개발 붐으로 땅값이 오르면서 거역의 보상금으로 벼락부자가 된 동네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목욕탕을 차리고, 누구는 집을 두고, 누구는 최고급 승용차를 사고, 누구는 아파트에 살면서 여전히 포도밭을 가꾼다는 등 온갖 얘기를 듣느라 나는 자주 이발소를 찾았었다.

그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두어 부러움을 사

던 농부는 서울 유학간 아들 학비 대고 아파트 사주느라 땅을 팔아버려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신세가 돼 버렸는데, 공부 못하고 말썽만 피우던 자식을 둔 농부는 땅만 파먹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 평평거리고 산다는 얘기가었다. 어떤 중소 공기업 사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공장을 꾸러갈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이발소는 나에게 살아 있는 현실을 가르쳐주는 교실이었다 셈이다.

그런데 동네 이발소가 사라져버린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호철의 '어느 이발소에서'에서 절묘하게 그려진 1960년대의 동네 이발소 풍경이나, 송강호의 '효자동 이발사'에서 묘사된 독재자와 소시민의 삶의 궤적은 어렵잖은 향수만을 환기시키는 무대 배경에 불과한 것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인터넷 연재만화(웹툰) '삼봉이발소'는 동네 이발소기보다는 미용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 만화를 빨리 구해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류동훈



'워낭소리' 관객이 21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워낭소리는 제작비 1억 원, 마케팅비 1억 원 합해 2억이 투자돼서 수익이 40억 정도 났다고 하니, 한마디로 '대박 영화'다.

이 영화가 성공하게 된 비결을 분석해 보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휴머니즘적인 감동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영화가 상상과 허구만으로는 감동에 한계가 있다. 화려한 휴가, 너는 내 운명, 말아톤, 선德勒 리스트 등 진한 감동으로 흥행 물이를 했던 작품들은 대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상과 허구를 보탠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까?

'대박소리' 시민운동 영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영화의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고, 그 시나리오대로 실제 스토리가 이루어져 영화를 만드는 '사실'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영화의 소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 시나리오를 '사실'로 만들어가면서, 수정 보완을 해 마침내 목표를 이루고, 이 과정들이 촬영에 담겨서 나중에 '영화'로 나오는 것이다.

최근 행복발전소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을 일류가수로 만들기 위해 3월10일에 음반만들기 후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 4월28일(화) 저녁에는 음반후원음악회 힘을 모아 '광주 가수 대박 콘서트, 도전! 좌석 802석 완전매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음악회 때는 어려운 시기 시민들 힘내시키고 빨간 바가지와 함께 '대박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관객들이 사용할 빨간 바가지도 250개 정도 준비했다. 앞으로 대박 콘서트와 광주 가수 공연들이 광주 지하철역, 시민공원, 터미널 등에서 시리드 개최될 것이다.

불황의 시기, 광주에서 새로운 희망

을 찾아가는 '예비 사회적 기업'들 사업 전체가 여기저기서 대박 터지는 소리가 '평평' 나길 소망한다. 우리 사업 역시 영화를 만들 소재가 살아 있다. 수십 년 동안 무명가수 생활을 해 오던 가수가 시대를 정성으로 음반을 내 성공하고, 그 노래로 변화를 받아 어떤 광주 시민이 용기와 사랑을 얻고, 그 가수들을 돕기 위해 60대 여성이 '대박 콘서트'를 추진해 힘을 모아가고, 그 영화에는 아마 노래와 춤이 많이 나오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좌절과 어려움으로 손에 땀을 쥐게 되는 장면도 있을 것이며, 사업이 논의되는 과정에 다양한 상상과 유머로 폭소가 터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업은 그렇게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고 이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촬영해 자료를 남기고, 마침내 목표가 달성되면 '워낭소리'같은 영화를 만든다. 영화를 만드는 제작비를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또 각종 공익적 기금도 모아오며, 민간투자도 끌어온다. 이 영화가 상영되면 개미 투자자들이 함께 관객을 모아간다. 수익금의 일부는 본 사업의 공익적인 목적에 투자하고,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나눠 준다.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고 성과를 나누는 시민운동은 영화 Prosumer(참여소비자)를 육성하여 새로운 문화산업의 영역을 창조할 것이다. 영화의 배경은 광주가 되고,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광주로 몰린다. 문화도시 광주와 시민운동은 영화로 거듭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이 된다. 광주 가수와 함께 대박 만들어가는 영화의 제목으로 '대박 소리'가 어떨까? 너무 촌스러운가?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기고

김태평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허허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없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책임이 무거울수록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직하고 용기 있는 말입니다.

개인과 단체, 국가까지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인정받고 자속발전이 가능할

기본조건으로 우리를 성공인생과 행복인생으로 안내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므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국가·기업·기관단체의 주요직위와 장은 책임을 지라고 임명한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않는 것도 저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거나 타인 탓으로 돌리는 근자의 행태는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책임은 자신과 국가를 위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우리를 불행케 하고, 중요하고 높은 지위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불평불만과 핑계로 가득하며, 시아가

"내가 책임자입니다"

니다. 책임은 곧 신뢰입니다. 책임은 타인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도산선생은 책임에 대해 언급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대한제국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된 자 나와라!"라고 하시면 '예! 나 안창호입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책임 있고 용감한 말입니까? 주인은 바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은 인간사의 고귀한 핵심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일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무거울수록 중요한 사람이 되고, 책임이 클수록 존경을 받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고 긍정적이며 정직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사람답게 만드는 영약이며, 멋지고 위대해지는 묘약입니다.

책임지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책임지면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책임은 공동체

어둠을 응색하며 초라합니다.

책임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행운이 왔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을 때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지는 것은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책임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할 때 발휘됩니다. 사익을 포기하면 더 큰 이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책임은 핑계나 구실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 있는 직위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래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난국을 극복하고 다수국민을 편히 살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넌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은 책임을 면해 주어야 합니다. 리더는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이며, 타인의 책임까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난국 극복과 선진국 진입은 우리 모두가 "내가 책임자입니다"라고 할 때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 학장>

도시미관 해치는 빨간색 간판 줄었으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 중 광주 시내에 무수히 많은 빨간색 간판이 일정부분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전 아이를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집 근처 중심상가에 나가 보았다. 평소와 같지 않다. 학원을 찾느라 눈여겨보니 간판들이 하나같이 빨간색 일색이었다.

우리 도시의 시내 간판이 빨간색이 너무 많아 문제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

다. 빨간색은 눈의 원추세포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어 눈을 자극한다고 들었다.

언젠가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세계적인 유명 매장들이 들어서 있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모든 간판은 일대의 건물색과 어울리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였다. 간판 하나에도 적용되는 이러한 조화의 원칙, 우리 광주도 빨간색의 마구잡이식 간판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순·광주시 관산구 도천동

성추행 교장 교육연구원 복직 '이럴수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창시절 고귀한 은 사남이고 존경받는 분들이었다. 그러나 정말 일부 선생님들은 스승이라는 호칭이 무색할만큼 어떤 선생님은 여자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예쁘다고 불을 만지거나 혹은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도 했다.

얼마전 여교사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교장으로 복직해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까지 빚은 충북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된 지 몇달 만에 다시 교

육연구관으로 복직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구과제를 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결과 평가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했길래 이런 사람이 다시 교육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도 딸을 둔 부모들은 집밖으로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졸인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교육에 서니 말이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시설

광주도시철도 2호 노선 조기 매듭지어야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선으로 제시된 '순환형'과 '남북형'이 지역간 갈등 양상을 빚으면서 노선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4개월째 공사 중단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에 이어 도시철도마저 장기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5년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최적으로 제시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총연장 27.40km의 순환형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확장노선이 5년이 지난 경우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철도법에 따라 효천역에서 철만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남북형을 추가한 2개 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순환형에 포함됐으나 남북형에서는 제외된 서구 금호·종암지구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 노선 확정이 유보된 상태다.

우리는 도시철도 2호선이 노선 갈등

으로 장기 표류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자 전문가들과 시의회 등은 기존의 순환선과 남북선을 절충한 각각의 대안 노선을 내놓고 있다. 노선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도시철도 2호선이 논란만 거듭하다 당초 목표인 내년 하반기 착공조차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도시철도는 도시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사회기반사업이다. 더욱이 도시철도 공사는 최악의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호재(好材)이기도 하다. 2호선 노선 논란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하는 이유다.

노선 갈등이 장기화되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미래 도시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2호선 노선을 조기에 확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붕어빵 지역축제' 과감히 통폐합하라

전남도가 민선 이후 난립하고 있는 지역 축제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고 한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매년 열려 오는 축제 가운데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시켜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8일 전남도는 '가보고 싶은 축제'를 모토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운영 강화' 지침을 마련해 타지역 축제와의 차별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색깔 있는 축제는 살리고 그렇지 않은 축제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유사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남도의 시도는 반가운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축제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축제가 넘쳐난다.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는 무려 800여 개에 달한다. 하루 평균 2.2개꼴로 축제가 열리는 셈이다.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모적인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지역축제가 난립하는 이유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임기간 치적용으로 축제를 남발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축제의 65% 이상이 19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탄생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물론 축제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함평 나비축제는 직·간접 경제 수입만 845억 원에 달하는 성공한 지역축제다.

문제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는 '붕어빵 축제'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이름만 다를 뿐 유사축제의 공영과 주민 노래자랑 등 '그 밖에 그 나물인' 축제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축제 통폐합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된 축제는 과감히 예산지원을 끊어야 한다. 축제의 목적을 가리는 것이 '붕어빵 축제'를 없애는 지름길이다.

無等鼓

십 수년 전 광주 출신인 전북지역 한 종합대학 교수가 구구절절할 편지를 보내왔다. 당시 은퇴가 임박했던 그 교수는 사후 의학연구용으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고 싶지만 아들들의 반대가 있다며 도와 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였다.

관련법상 시신기증은 배우자와 자녀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아들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펼 수 없다며 꼭 기사를 써달라는 주문이었다. 그 교수는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면 아들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해결책'으로 연락을 해왔다.

일단 그 교수를 만나기로 하고 하루 품을 팔아 대학으로 찾

완강한 반대를 쉽사리 넘어설 수 없었던 모양이었지만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신념만큼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각 기증을 서약한 김 추기경이 약속을 지켜 선종 후에도 큰 감동을 준 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은 생존 시는 물론, 사망 후에도 신체를 존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광주 등에서 벌어진 장기기증 캠페인에서는 김 추기경의 영향 탓인지 호응이 대단했다. 또 장기기증에 참여하겠다는 사람

장기 기증



도 크게 늘고 있다.

장기·시신기증은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시신기증도 열광했던 노교수의 바람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정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222-8005		<F A X>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